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記載된 婦人科 學說에 關한 研究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이병욱, 김은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김기욱, 박현국

ABSTRACT

A Study of Gynecology Theory in Qian~Jin~Yao~Fang and Qian~Jin~Yi~Fang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san Univ.

Byung-Wook Lee, Eun-Ha Kim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Ki-Wook Kim, Hyun-Guk Park

Sun~Si~Miao(孫思邈) is known to everybody as a great medical doctor. He has written two famous books. Those are the Qian~Jin~Yao~Fang(《千金要方》) and the Qian~Jin~Yi~Fang(《千金翼方》). He said that woman's disease differ from man's disease, we must care of woman carefully. And he has written seven parts of the books on gynecology. He has introduced reason of woman's disease and method of medical treatment variously. Also he has introduced a method of making cosmetics and beauty treatment.

So We summarized pediatrics theory in two books and decomposed reason of disease and method of medical treatment. Also I compared with Xiao~Pin~Fang(《小品方》)

In conclusion, I have known that Sun~Si~Miao's gynecology is consist of useful and various substance.

key words : Qian~Jin~Yao~Fang, Qian~Jin~Yi~Fang, Gynecology, Sun~Si~Miao

접수 : 2002.10.16 채택 : 2002.11.12

교신저자 : 이병욱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경산대한방병원 원전·의사학교실
(Tel. 053-763-1121), E-mail : dul1bw@kyungsan.ac.kr

I. 緒論

孫思邈의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은 중의학의 寶庫로써 풍부한 의학적인 내용들을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兩漢、魏晉、南北朝、隋、唐 초기까지 각 시대의 유명한 醫家들의 의학사상과 처방들을 기록하고 있어, 고대 의학 문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¹⁾. 孫氏는 醫家들의 醫方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인과 질환에 있어 남자와 구분되는 점이 있음을 파악하여 “남자와 여자의 처방이 별도로 있는 것은 妊娠과 出產 그리고 崩으로 인한 손상이 남자와 구분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부인들의 병은 남자에 비하여 10배나 치료가 어렵다”²⁾라 하여 여성의 질환에 대하여 ‘別立方’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別立方’의 필요성은 바로 부인과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부인과의 의학에 있어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³⁾.

《小品方》에서도 부인과 질환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나 〈治女子衆病諸方〉、〈治婦人無兒諸方〉、〈治任胎諸方〉、〈治產後諸方〉、〈治婦人諸血崩帶下宿疾諸方〉이라는 다섯 疾患群으로 분류하였지만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에 비하여 상세하지 못하다. 孫氏는 부인의 胎·産·經·帶에 따른 여러 질병과 처방을 설명하여 婦産科 질병의 범위와 처방·방약에 기초를 세웠고, 별도의 〈補益〉篇을 따로 두어서 부인과 질환 가운데 虛羸로 인한 질환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들을 따로 모았다.

《천금요방》과 《천금익방》 총 60권 가운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서술을 가한 부분은 모두 7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이는 孫氏가 부인과의 독립된 분과로 인식하여 부인과 질환을 중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저술을 통하여 부인과의 다양한 질환의 특성을 다양하게 논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처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부인과의 동양의학에 있어 전문적인 분과로 형성되는데 학문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부인의 생리·병리적 특징’과 ‘부인과 질환’ 및 ‘미용’에 관한 孫氏의 다양한 임상요사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의 저술시기와 편재의 비교

1) 《備急千金要方》

《천금요방》 또는 《千金方》으로 간칭하며 모두 30권이다. 唐 초기의 손사막이 7세기 초에 편찬한 것이다. 659년에 완성된 《新修本草》의 烏芋 등의 조문에서 《천금요방》의 문장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천금요방의 편찬 년대는 이것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唐 이전의 의학문헌을 대량으로 참고하고 아울러 손씨 본인의 학술적 견해를 결합하여 저술한 종합성 의학저작이다. 30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권: 序例、2-4권: 婦人方、5권: 少小嬰孺方、6권: 七癆病、7권: 風毒脚氣、8권: 諸風、9-10권: 傷寒方、11-20권: 臟腑病論、21권: 消渴諸病、22권: 疔腫、癰疽、23권: 痔漏、24권: 解毒、25권: 備急、26권: 食治、27권: 養生、28권: 平脈、29-30권: 針灸孔穴

2) 《千金翼方》

《천금익》이라고 간칭하며 모두 30권이다. 이것은 손사막이 만년에 《천금요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어서 편찬한 종합성 의서이다. 편찬년대는 약 7세기 중기에서 말기이며 659년 《新修本草》가 저술된 이후이

다. 본서 30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권: 本草, 5-8권: 婦人方, 9-10권: 傷寒, 11권: 小兒方, 12권: 養性, 13권: 辟穀, 14권: 退居, 15권: 補益, 16-17권: 中風, 18-20권: 雜病, 21권: 萬病, 22권: 飛煉, 23-24권: 瘡癰, 25권: 色脈, 26-28권: 鍼灸, 29-30권: 禁經

3)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내용 비교

《千金要方》은 손사막이 20餘歲 부터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반세기에 걸쳐 여러 경을 널리 모으고 경방을 찾아 번잡한 것은 없애고 자신의 경험을 총괄하여 넣어 70세 때 《備急千金要方》 30권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흠 빠진 것이 없을까 염려하여 다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발견하지 못한 문헌을 열람하고 服餌, 약물재배 기술을 찾아 30년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千金翼方》 30권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傷寒理論에 관해서 《千金要方》에는 仲景의 傷寒理論 이외의 여러 傷寒學派의 傷寒理論이 기재되어 있고, 《千金翼方》에는 仲景의 傷寒理論이 가장 치료효과가 높다고 하여 仲景의 傷寒理論만 기재하였다. 따라서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을 내용상으로 비교한다면, 傷寒理論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미처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2. 婦人의 生理·病理의 特徵

《천금요방》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처방이 별도로 있는 것은 妊娠과 出產 그리고 崩으로 인한 손상이 남자와 구분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부인들의 병은 남자에 비하여 10배나 치료가 어렵다 …… 임신한 한 상태에서는 병이 들어도 약성이 강한 약은 피해야 한다 …… 그리고 여인들은 嗜欲이 남자보다 많아서 남자보다 2배나 병에 잘 걸리고 ……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병의 뿌리가 깊어서 치료해도 낫기가 어렵다.”³⁾라 하여 부인과 질환이 성인 남자의 질환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치료 또한 쉽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질병에 있어서의 차이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월경과 관련된 해부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情緒의인 側面에 있어서도 남자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3. 婦人科 疾患에 關한 記載

1) 不妊(求子)

불임에 대해서는 주로 《천금요방》에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였으며 《천금익방》에는 특이할만한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천금요방》에 의하면 불임의 원인이 부부의 四柱³⁾, 부부의 五勞七傷과 虛羸³⁾, 子宮內惡物³⁾, 남편의 陽氣不足³⁾, 부인의 下焦疾患³⁾, 寄生蟲疾患³⁾, 絶産³⁾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불임의 원인이 남편의 精氣不足과 陽氣不足 등에도 있다는 내용은 당시로서는 특이할 만한 내용이다. 孫氏가 제시한 원인들은 《諸病源候論》의 〈月水不利無子候〉, 〈月水不通無子候〉, 〈子臟冷無子候〉, 〈帶下無子候〉, 〈結積無子候〉, 〈數失子候〉篇에서 제시한 원인들과도 상당부분 부합되는 타당성 있는 원인들이다. 치법으로는 補不足³⁾, 또는 祛瘀하는 내복약을 사용하는 전신적인 치료요법이 있으며, 약물을 비단으로 싸서 坐藥형태로 만들어 壺內에 삽입하는 국부적인 치료방법³⁾과 灸法도 사용되었으며, 주술적인 방법³⁾도 치법으로 기재하였다.

2) 妊娠惡阻

《천금요방》은 《小品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妊娠惡阻의 원인이 虛羸, 血氣不足, 腎氣虛弱, 飲冷太過, 心下有淡水라고 하였으며^{3,5)}, 心中憤憤, 頭重眩暈, 四肢沉重懈惰, 不欲執作, 惡聞食氣, 欲啖咸酸果實, 多臥少起하는 증상

이 나타난다고³⁵⁾ 하였다. 또한 발병기전에 대하여 經血이 폐색되어 水氣가 臟에 쌓이게 되면, 臟氣가 不宣通하여 心煩憤悶、氣逆、嘔吐의 증상이 나타나고 血脈不通하여 四肢沉重하게 되며 風邪가 동반되면 頭目眩하게 된다고³⁵⁾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諸病源候論》의 〈妊娠惡阻候〉篇에서 제시한 내용들⁶⁾과 동일한 것으로서 妊娠惡阻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처방으로는 淡水를 제거하는 半夏茯苓湯、茯苓丸、橘皮湯 등을 복용하여 식욕을 도와 체력회복에 힘쓰며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가감한다고³⁵⁾ 하였다.

3) 妊娠과 養胎

孫氏는 임신의 진단에 있어서는 “經에서 말하기를 맥이 陰搏陽別한 것을 임신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血氣가 조화롭고 陽施陰化한 것이다. 진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소음맥이 동하는 것이 심하면 임신한 것이다. 소음은 心脈이며, 心은 血脈을 주관한다. 또 腎은 胞門、子戶라고도 한다. 尺中은 腎脈이 해당하는 부위이다. 尺中의 맥이 깊이 눌러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임신한 것이다. 三部脈의 표층부와 심층부가 같아서 깊이 눌러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임신이다. 임신초기에는 寸맥이 微小하고 한번 호흡에 五至하나 3개월이 되면 尺맥이 數해진다.”라고 하여 맥진을 통한 진단법³⁾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小品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임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대개 월경을 할 때가 되어서 顏色과 肌膚는 평소와 같으나 속이 불편하고 몸이 무거우며 가슴이 답답하며 음식생각이 없는 것이다. 또한 어디가 아픈지 모르며 脈은 和平하면 이것이 곧 임신이 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개월 정도가 지나도 문득 월경이 통하지 않으면 곧 結胎된 것이다.”라고 하여 증상을 통한 진단법³⁵⁾을 제시하였

는데, 맥진을 통한 진단법은 《諸病源候論》의 〈妊娠候〉에서 설명한 내용⁶⁾과 동일하며 임신초기의 태아 성감별에 있어서는 좀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

養胎에 관해서는 妊娠禁忌와 태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임신금기와 태교의 중요성은 태아에게 ‘逐物變化, 稟質未定’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養胎方法의 옳고 그름에 따라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강조된 것이다. 孫氏는 임신금기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³⁾은 《諸病源候論》의 〈妊娠禁忌候〉에서 제시한 “소아가 胎中에 있을 때에는 陰陽의 氣가 未備하고 臟腑와 骨節이 모두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임신 초기부터 출산을 마칠 때까지 飲食과 居處에 모두 禁忌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내용⁶⁾과 동일하게 기록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도 함께 기록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옛말에 무릇 임신 3개월이 되면 태아가 逐物變化하는 稟質未定의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임신 3개월이 되면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용맹한 짐승이나 옥구슬 같은 보물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賢人君子나 德望이 높은 큰 스승을 보려해야 하며, 禮樂과 鐘鼓 및 祭器등을 가지런히 진설하고 좋은 향을 피워놓고 있어야 하며, 詩書를 외우고 고금의 교훈을 배워야 하며, 居處를 깨끗하게 하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며, 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며, 악기를 연주하여 心神을 기르고 마음을 조화롭게 하며 욕심을 절제해야 하며, 매사를 깨끗하게 처리하면 낳는 자식이 모두 좋아서 長壽하고 충성심과 효심이 깊으며, 仁義가 있고 총명하고 無病할 것이다. 이것이 文王의 胎教하는 방법의 요점이다.”라고 태교의 방법을 직접 설명했다³⁾는 점이 질병에 관한 내용만을 전문적으로 기술한 《諸病源候論》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徐之才의 《遂川養胎方》을 인용하여 임신 개월 수에 따른 태아의 발육상태를 설명하였고³⁾ 식생활 및 針灸施術의 주의사항과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손씨는 妊娠禁忌외에도 권장사항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는데, 태아의 발육상태에 따른 태아와 妊婦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임신 6개월이 되면 金精을 받아 筋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몸을 약간 피곤하게 해야 하므로 한곳에 머물지 말고 들로 나가 노닐어야 한다.”와 같은 권장사항을 기술하였고³⁾ 개월 수에 따른 적절한 처방도 함께 기재하였다. 이러한 養胎法은 《제병원후론》에서 妊婦의 운동습관과 소아의 질병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⁶⁾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孫氏는 出産徵候³⁾와 병으로 인한 복통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출산시 임신부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복통이 심하고 눈에서 불이 번쩍해야 아기가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催産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밖에도 출산 때 주의사항으로 위생상태의 점검³⁾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출산에 임박해서는 助産人은 반드시 출산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해야 하며³⁾ 너무 많은 사람이 어수선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³⁾ 아기의 성별에 관하여 묻지 말라고³⁾하여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조산활동 강조하였다.

4) 難産

孫氏는 난산의 원인이 産母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기력이 약해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³⁾와 분만 시 태아의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가 아닌 경우³⁾, 그리고 死産의 경우에 産母의 津液이 고갈되어 사산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³⁾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

은 《諸病源候論》의 〈産難候〉⁶⁾에서 제시한 去血臟燥、宿病、觸犯禁忌、穢露已盡과 동일한 관점이다. 去血臟燥의 관점은 《華佗傳》⁶⁾에 이미 기재된 내용으로 死産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태아의 자세 및 死胎와 관련된 난산의 형태에 대해서는 출산 때 태아의 자세에 따라서 난산의 정도가 달라짐을 표현하고 있다³⁾. 또한 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죽음은 산모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밝혔고³⁾ 산모를 살리는 방법은 死胎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³⁾, 難産의 상황에서 태아와 산모의 예후에 관한 진단법을 제시하였는데³⁾, 이 방법은 《諸病源候論》의 〈産難候〉⁶⁾에서 제시한 “難産은 漏胎라는 선행요인에 의하여 去血過多가 발생하여 臟燥해지므로 발생하거나, 或은 子宮에 오랜 병이 있거나, 或 임신중 금기사항을 어긴 경우, 혹은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아직 출산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서 힘을 쓰다가 양수가 너무 일찍 배출이 되어 산도가 건조하고 뻣뻣해지거나 산모가 기력이 다하는 경우가 모두 난산이 된다.”와 같은 내용이다. 또한 출산시에는 태아 외에도 胞衣의 배출 또한 출산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며 胞衣不出도 산후 腹痛과 腰背痛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³⁾. 《諸病源候論》의 〈胞衣不出候〉⁶⁾에서는 胞衣不出의 원인과 기전을 밝힘과 동시에 胞衣不出로 인하여 소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까지 정리하고 있다.

치법에 있어 逆生인 경우에는 먼저 나온 태아의 손발을 침으로 찢어서 다시 집어넣은 뒤 방향을 틀어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⁴⁾. 子死腹中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죽은 아이를 배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³⁾, 산모가 위독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술자가 환자의 입을 벌리고 약물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였고³⁾, 미신적인 방법도 사용하였다³⁾. 이외에도 약물을 사

용한 경우 가운데 난산의 치료에 있어서 弓弩 弦을 복용시키는 내용이 있는데³⁾, 이것은 弓弩 弦이 화살을 빠르게 날린다는 의미에서 산모의 복부에 감는 방법을 취했던 것에서 유래한 효능을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지 “主難産, 胞衣不出”⁸⁾한다는 효능에 따라 내복약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⁹⁾.

5) 産後 調理

산후 조리에 있어서는 “모든 산모는 熱藥을 복용하는 것과 熱麵을 먹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음식을 일반인처럼 먹으면 기육에서 열이 난다.”, “婦人이 출산을 하면 五臟이 虛羸해지므로 오직 補法만 사용해야 하며 전적으로 瀉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인이 출산후 100일 이내에는 심하게 일하고 근심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하며, 몸을 마음 가는 데로 해서 부부관계를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특히 화장실에 가서 불일을 보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방안의 통에 불일을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산후 100일이 되어야 부부관계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죽거나 허약하게 되어 많은 병이 발생하는 신중해야 한다 …… 대개 부인이 風病에 걸리면 모두 臍下虛冷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일찍 부부관계를 갖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 대개 부인이 여름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찬 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風冷에 감촉되면 腹中에 積聚가 발생하며 많은 병이 함께 발생하니 늙을 때까지 병을 치료해도 차도가 없다. 桃仁煎은 그것을 치료하는데 出產後에 복용하라.”라 하여 飲食³⁾, 房勞, 排便習慣, 寒濕³⁾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瘧風, 積聚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 心腹痛

心腹痛에 대하여 《친금요방》에서는 心痛과 구분하지 않고 〈心腹腰痛及脹滿〉篇에 함께 기록하였다. 그러나 《친금익방》에서는 心痛과 腹痛을 따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두 증상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였다. 《친금요방》에는 妊娠中 心痛에 관하여 원인과 증상에 관한 醫論 없이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처방 가운데 心痛의 원인이 寒³⁾, 虛羸, 瘀血³⁾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한 治法으로 補不足, 祛寒, 消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임신중의 心腹痛 원인으로 傷胎結血³⁾, 中惡³⁾, 中蠱³⁾가 있다고 하였으며, 치료법으로 몇몇의 내복약과 미신적인 내용³⁾의 치료법을 소개하였다. 반면에 《제병원후론》에서는 風邪와 痰飲이 心의 경락에 침범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⁶⁾.

《친금익방》에서는 産後腹痛에 대하여 따로 기록을 하고 있으며, 治方 가운데 산후복통과 산후심통의 원인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산후복통은 원인이 寒冷에 있다고 하였고⁸⁾, 産後心痛의 원인은 虛寒과 寒冷에 있다고 밝혔다.⁸⁾ 이에 대해서는 《제병원후론》에서도 산후 腹痛과 心腹痛, 心痛 모두 臟虛 혹은 氣血虛가 기본이 되어 風寒邪가 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

따라서 孫氏는 출산전과 출산후의 心痛 혹은 心腹痛은 증상은 비슷하나 원인에 있어서 傷胎結血, 中惡, 中蠱와 虛寒, 寒冷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7) 妊娠傷寒

임신상한에 대해서는 처방에 있어서 내복약³⁾ 뿐만 아니라 몸을 시원한 약물로 닦아주거나³⁾ 흠칠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³⁾ 상한에 관한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千金方衍義》에서는 임신상한에 관한 치료의 원칙의 태아에게 危害를 미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 손씨가 이렇게 임신상한의 치법에 치중하여 기술한 반면 《제병원후론》에서는 〈妊娠傷寒候〉、〈妊娠傷寒後復候〉、〈妊娠時氣候〉 등에서 임신시의 외감 질환의 증상을 설명하고 심할 경우 傷胎시킬 수 있다⁶⁾는 이론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다.

8) 妊娠下血

임신하혈의 원인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이나 추락과 같은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³⁾ 보았으며,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胎動³⁾、腰痛、吐血³⁾ 등의 증상과 함께 流產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논술하였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치법은 주로 내복약을 통한 치료가 주가 되며 증세가 심해서 口急不能飲한 경우에는 格口灌之의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시키는 방법이 동원되었다³⁾. 《제병원후론》에서는 〈妊娠卒下血候〉、〈妊娠墮胎後血出不止候〉에서 임신하혈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胎動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추락과 같은 물리적 충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9) 妊娠下痢

《천금요방》에서는 “濃血을 포함한 赤滯와 魚腦 같은 白滯가 나오면서 臍腹絞痛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妊娠 혹은 출산후에 寒熱이 있으면서 下痢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處方” 등 임신하리와 대하의 유형별 처방 및 구별을 소개하였을 뿐³⁾ 醫論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천금익방》에서는 產後下痢와 虛乏、中風、帶下가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⁸⁾. 임신하리의 원인에 관해서는 《제병원후론》의 〈妊娠下利候〉와 〈妊娠滯利候〉에서는 風、腸胃虛弱、冷熱不調가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인체가 虛한 틈을 타

서 사기가 들어오면 사기의 성질에 따라서 冷利、熱利가 된다고 하였다.

10) 妊娠水腫

손씨는 주로 임신수종의 치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치법에는 내복약 외에도 “妊娠毒腫을 치료하는 처방: 蕪菁根을 잘 씻어서 去皮하여 가루를 낸 다음 醋와 함께 반죽을 하는데 물기가 없도록 하여 센 불에 익혀서 환부에 적당히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묶어둔다. 하루에 두 번 바꾸어 준다. 겨울에는 약간 따뜻하게 하고 뿌리가 없을 때에는 종자를 사용하고 만일 부종이 목구멍에 있으면 즙을 내어 머금고 있다.”라고 하여 약물을 환부에 붙이고 천으로 싸서 환부로 약물이 직접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³⁾을 사용하였으며 목구멍에 환부가 있을 때에는 약물을 입에 물고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11) 虛損

《천금요방》의 虛損에서는 產褥期에 발생하는 각종질환에 대하여 다양한 언급을 하였으며, 《천금익방》에서는 〈虛損〉篇 이외에 〈虛乏〉篇을 별도로 두어 虛損의 내용 중에 心虛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孫氏는 虛損을 惡露와 함께 產後發病의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하였다. 《천금요방》에서 孫氏는 산욕기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婦人是 출산후에 五臟이 虛羸해지기 때문에 오직 補法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瀉하는 처방은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병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강한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강한 약을 사용한다면 허한 상태가 가증될 것이다.”라고 하여 ‘行房’、‘不愼’、‘惡露’ 못지 않게 ‘五臟虛羸’ 또한 중시하였다. 이처럼 그는 허손은 작은 원인으로도 큰 병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

했다³⁾. 또한 감염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瘴風’에 관한 내용이나 ‘特忌上廁便利, 宜室中盆上佳³⁾’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당시에도 이미 산욕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아에서 臍帶를 오염된 도구로 절단할 경우 파상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남을 언급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虛損으로 유발되는 부인과 질환에 대한 治法에는 補益위주의 治法을 제시하였다³⁾. 《천금익방》 역시 虛損으로 나타나는 각종 증상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였으며 ‘當歸建中湯’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若大虛, 納飴糖六兩作湯成, 納之于火上煖, 令飴糖消, 若無生姜, 則以乾姜三兩代之. 若其人去血過多崩傷內跑不止, 加地黃六兩, 阿膠二兩, 合八種作湯成, 去滓, 納阿膠, 若無當歸, 以芎藭代之.”⁸⁾라 하여 세부 증상에 따른 처방의 가감법을 엿 볼 수 있다.

12) 虛煩

허번에 관하여 《천금요방》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처방만 기록하고 있으나, 《천금익방》에서는 虛煩의 원인이 產後內虛⁸⁾와 瘀血⁸⁾에 있음을 밝혔다. 산후허번은 《諸病源候論》에서도 혈기가 모두 손상되어 장부가 허하기 때문에 氣가 안에서 편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 때문에 孫氏는 치료에 있어서는 補虛를 위주로 하여 처방을 구성하였으며, “淡竹茹湯治產後虛煩, 頭痛, 短氣欲絕, 心中悶亂不解, 必效方 …… 若有人參入一兩: 若無人參, 納茯苓一兩半亦佳. 人參, 茯苓皆治心煩悶及心虛驚悸, 安定精神, 有則爲良, 無自依方服一劑, 不遂更作. 若氣逆者, 加半夏二兩.”이라 하여 구성약물들이 처방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³⁾.

13) 產後中風

산후중풍에 대하여 孫氏는 병의 근본 원인이 正氣虛弱³⁾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諸病源候論》의 〈產後中風候〉에서 출산으로 인하여 혈기가 손상되고 장부가 손상된 후 미처 회복되기 전에 노동을 하여 기가 허해진 틈을 이용하여 풍사가 침범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⁶⁾. 따라서 孫氏는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는 약성이 강한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과 大發汗이나 瀉吐利하는 治法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外感疾患의 中風 뿐만 아니라 血虛生風에 해당하는 피부질환 및 경련성 질환까지도 같은 범주에 넣어서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孫氏가 제시한 治法들을 살펴보면 ‘補虛’하는 치료법이 위주가 되었으며³⁾, 微發汗法을 이용하는 방법³⁾과 경련에 대한 치료법³⁾이 있으며 또한 피부질환에 대한 “產後中風流腫을 치료하는 浴湯方: 붉게 붉은 소금과 재로 만든 닭 깃털 한줌을 사용하여 소금물을 끓인 다음 닭 깃털의 재를 넣어 온도를 적당히 맞추어 목욕을 하면 매우 좋다. 또한 婦人의 陰冷腫痛에도 목욕을 하면 좋다. 일반적으로 風腫을 인하여 얼굴이 트는 경우는 紫湯을 복용하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紫湯은 黑豆를 炒하여 만든 것이다.”와 같은 外治法³⁾도 기재되어 있었다. 《천금익방》에는 產後中風의 처방만 기록하고 있을 뿐 《천금요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4) 惡露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에서 惡露를 중요한 병인의 하나로 보았으며, 產後에 惡露不盡으로 인하여 腹痛不除小腹急痛, 痛引腰背, 少氣力, 逆搶心胸, 手足逆冷, 唇乾, 腹脹, 短氣, 積聚作病, 血氣結搏, 心腹疼痛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각종 오로를 제거하는 처방을 함께 나열하였다. 손씨는 오로를 치료

할때 오로를 어혈로 보고^{3,8)} 治法으로 祛瘀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산후에 나타나는 腹痛、積聚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설명하였다³⁾.

15) 產後下痢

산후하리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으며 처방 19首 가운데 “龍骨丸治產後虛冷下血，及谷下晝夜無數，兼治產後惡露不斷方”³⁾，“阿膠丸治產後虛冷痢下，心腹絞痛，兼泄瀉不止”³⁾“澤蘭湯治產後餘疾，寒下凍膿，裏急，胸脇滿痛，咳嗽嘔血，寒熱，小便赤黃，大便不利方”³⁾라 하여 산후하리가 虛寒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함을 언급하였다. 《제병원후론》에서는 산후하리의 원인에 대해서 〈產後虛冷痢候〉、〈產後滯利候〉、〈產後赤熱利候〉、〈產後客熱利候〉、〈產後赤利候〉에서 虛、寒氣、熱氣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인체가 虛한 틈을 타서 사기가 들어오면 사기의 성질에 따라서 冷利、熱利가 된다고 하였다.

16) 淋瀝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의 〈淋瀝〉篇에서는 淋症에 대해서만 “婦人이 기가 結滯되어 淋症이 생기면，小便을 볼 때 당기는 듯한 통증이 小腹部에 이르고，或은 피오줌이 나오며 혹은 콩즙 혹은 아교 같은 소변이 나오게 되고 매번 발작할 때마다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음식을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얼굴과 눈이 누렇게 떠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³⁾라 하여 結氣가 淋症의 원인이 된다는 것과 淋症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였을 뿐이며，산후에 발생하는 濁症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諸病源候論》의 〈產後淋候〉에서는 산후림증에 대하여 허손한 상태에서 열기가 자궁으로 들어오면，허증으로 인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되고 열사로 인하여

소변량이 적게 되므로 淋證이 된다고 설명하였고⁶⁾ 〈產後濁利候〉篇에서는 濁利의 정의를 설명하였고，腎과 膀胱의 기가 손상되어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신허하면 水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소변을 자주보게 된다고 濁利 발생기전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⁶⁾.

17) 月水不通

《천금요방》의 월수불통에서는 月經不通過로 인해서 발생하는 癥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며 처방 31首가 기재되어 있다. 처방에 기재된 내용들로 살펴보면，월수불통은 寒熱、胸中支滿、肩背脊重痛、腹里堅滿積聚、痛不可忍、引腰、小腹痛 등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意欲投水中、不欲行動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도 함께 동반되어 나타난다³⁾고 설명하였다. 원인에 대해서는 腹中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³⁾가 있으며，이것으로 인한 증상들과 癥瘕는 通血³⁾과 破血下癥³⁾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諸病源候論》의 〈月水不通候〉에서 제시한 勞損血氣、衝任脈損傷、出血過多、腎虛、肝血不足 등의 원인에 비하면 이론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18) 婦人積聚

《천금익방》에서는 부인적취의 항목을 따로 두어 《천금요방》에 산재되어 있는 癥瘕積聚에 관한 처방을 모으고 보충하여 13종의 처방을 기록하였다. 부인적취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는 癥瘕積聚가 주로 風寒濕、惡露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였고³⁾，脾胃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처방들을 살펴보면 주로 烏頭、巴豆、乾薑、石膏、大黃、消石、桃仁、蠶蟲、虻蟲、水蛭、芍藥、當歸 등을 사용하여，去寒、瀉下、祛瘀血、止痛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梅核氣의 治

方을 부인적취의 항목에 넣어 痰飲을 제거하는 방법도 적취 치료에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19) 赤白帶下崩中漏下

孫氏는 《천금요방》에서는 적백대하붕중루하를 모두 한편에서 설명하였는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帶下와 崩漏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질환과 불임의 원인이 되는 질환까지도 언급하였다³⁾. 이러한 부인과 질환은 熱、寒、濕、房勞、任脈損傷、產後合病症 및 勞損 등이 원인이 된다³⁾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질환은 단독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뒤섞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하였고^{3,8)}, “愼火草散은 崩中、漏下赤白青黑 및 腐臭가 심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 寒多한 경우에는 附子와 椒를 加하고, 熱多한 경우에는 知母와 黃芩 各一兩을 加하며, 白多한 경우에는 乾姜과 白石脂를 加하고, 赤多한 경우에는 桂心과 代赭 各二兩을 加한다.”라고 하여 그것을 변증하는 방법과 隨症加減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다³⁾. 그리고 “當歸湯은 崩中去血로 인하여 虛羸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 房勞과 嘔怒를 피하고 百日간 房事를 금해야 한다.”라고 하여 服藥 이외에 주의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였다³⁾. 《천금요방》에서는 이 가운데 崩中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20) 月經不調

《천금요방》의 〈月經不調〉篇에서는 월경의 周期、期間、性狀、經行痛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월경 자체의 이상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처방³⁾과 함께 월경시 동반되는 각종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함께 언급하였다³⁾. 또한 월경부조의 원인에 대하여 風冷이 월경부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처방은 하법을

쓴다고 소개하였다³⁾. 《천금요방》의 〈月水不利〉篇에서도 “治婦人月水不利, 少腹堅及大便不通, 時時見有物下如鼻涕或如鷄子白, 皆胞中風冷也方”⁸⁾, “產後風冷, 留血不去停結月水閉塞方”⁸⁾라 하여 월경부조의 원인이 風冷과 瘀血이라 하였으며, 월경부조로 인하여 유발되는 증상에 대하여 “治血瘀, 月水瘀血不通, 下病散堅血方”⁸⁾, “治月水不通結成癥堅如石, 腹大骨立, 宜破血下癥物方”⁸⁾이라 하여 어혈을 제거해야 함을 밝혔다.

21) 產後心悸

손씨는 《천금요방》에서 산후심계에 관하여 원인이 산후에 心이 虛해진 까닭이라고 하였으며, “產後에 갑자기 心悸不定하여 고통스럽고,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정신이 몽롱하며 가슴이 답답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은 心虛로 인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 頸項이 매우 당기고 등이 뻣뻣한 사람은 獨活、葛根、麻黃、桂心 各三兩과 生姜 八兩을 加하여 물 한말 닳되를 끓여서 세되반을 취한 다음 네번에 나누어 복용하는데 낮에 세번 밤에 한번 복용한다.”라고 하여 동반되는 증상에 따른 원활한 활용을 위한 가감법을 제시하였다⁸⁾. 《제병원후론》에서는 產後心悸에 대하여 따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다만 〈產後心虛候〉에서 心氣虛하면 驚悸恍惚하게 된다고 하였으니⁶⁾ 產後心悸가 심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雜治

孫氏는 〈雜治〉篇에서 산후에 발생하는 기타 증상과 硫黃丸과 같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법、陰脫의 치료법、성기주위 피부질환의 치료법、交接出血의 처방 등을 제시하였고, 《천금요방》에서는 婦人雜病에서 배뇨장애에

관한 내용을 증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천금익방》의 〈損傷〉篇에서는 性交過多로 인한 여성질환에 대하여 처방과 증상을 소개하였다.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산후에 虛羸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硫黃丸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³⁾. 출산 후 발생하는 陰脫과 玉門開에 대해서는 내복약뿐만 아니라 좌욕법³⁾과 좌약³⁾ 및 구법³⁾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복압이 높아지면 음탈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의를 주었다³⁾. 성기주변의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병의 원인의 하나로 蟲을 들었으며, 蟲의 生死로 질병의 치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洗浴、膏劑의 塗布、좌약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였다³⁾. 배뇨장애에 관해서는 까닭 없이 뇨혈 증상이 보이는 경우,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 熱入五臟해서 발생하는 소변불리、轉胞로 인한 소변불리 등의 처방을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4. 美容에 關한 內容

1) 化粧品

《천금익방》에는 여성의 미용과 관련된 기미와 검버섯을 제거하고⁸⁾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⁸⁾을 하는 연고형태의 처방과 가루형태의 처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처방들은 미백효과⁸⁾、피부탄력회복효과⁸⁾、혈색이 돌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부 처방은 斑猫、巴豆、高良薑처럼 약성이 강한 약물을 하루저녁 동안 발라 놓았다가 甘草湯으로 씻어내는 방식을 취한 것⁹⁾으로 볼 때 알은 정도의 化學的인 剝皮術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芳香劑

《천금익방》에는 약재를 태우거나⁸⁾ 옷장에 함께 넣어서 의복에 향기를 내는 방법⁸⁾과 내복할 수 있는 방향제를 만들어 입안에 물고 있거나 복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체취를 없애고 향기가 나게 하는 방법과 제조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⁸⁾.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탈취제、향수、구강세정제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시에는 단순하게 몸에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차원에서도 응용하던 방법이다.

3) 發毛劑

《천금익방》에는 탈모와 조기에 백발이 되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19가지가 언급되어 있으며, 頭髮의 색깔과 房室이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⁸⁾ 치료제의 유형에는 연고제 형태로 두피에 바르는 형태와 洗髮時에 약물을 함께 넣어 머리를 감는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⁸⁾.

III. 考 察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은 孫思邈이 70餘年間の 임상경험과 의학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唐代以前의 수많은 典籍들을 참고하여 저술한 만큼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서적으로써 방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면서 이론적 체계 또한 잘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는 질병 하나하나에 대한 이론적 배경설명은 당시에 가장 체계적으로 병리이론을 정리했던 《諸病源候論》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의 내용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을 개재하는 과정에 일부 포함된 四柱나 符籍과 같이 현대

에는 사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많은 내용은 아니다. 손씨는 부인과 질환이 지니는 특징이 남녀가 가지는 해부학적인 구조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한다고 보았고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여성의 질환을 남성질환과 구별하여 따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經帶胎產이라는 생리적인 차이로 생기는 질병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감정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질병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상적 내용에 있어서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손씨는 대부분의 질병 치료원칙과 처방들이 이론적인 내용과 부합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여러 저작들에 산재해 있는 매우 다양한 처방들을 한 곳에 모아 기재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기재하였다. 즉 일반적인 내복약을 통하여 치료하기 곤란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鍼灸法, 坐藥, 疔藥, 沐浴法, 薰蒸法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逆生에 鍼刺를 실시하여 手足을 다시 집어넣어 분만하는 방법, 妊娠下血에 위급한 경우 格口灌之의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시키는 방법, 妊娠痔腫을 치료할때 외용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妊娠中の 각종 질환에 대한 대처방법들은 임신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국소질환의 경우에 임신금기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는 소극적인 처방 보다는 소량의 약물로 태아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외용약을 국부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손씨가 養性學說을 통하여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건강증진의 방법을 추구했던 것 처럼 부인과 영역에서도 정상적인 임신, 출산, 산후조리 및 각종 미용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IV. 結 論

孫思邈은 婦人の 胎, 産, 經, 帶와 情緒的인 特徵에서 起因되는 부인과 질환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婦人科가 獨立的인 分科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양한 부인과 질환의 원인, 증상, 처방을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서 모두 7권에 걸쳐서 정리하였다. 孫氏의 부인과 학설에 관한 내용은 妊娠, 出産, 産後病, 기타 부인과 질환 및 미용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妊娠과 관련해서는 不妊, 妊娠의 診斷, 養胎, 妊娠中の 疾患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불임은 원인이 夫婦의 四柱, 五勞七傷, 虛羸, 流産 그리고 남편의 陽氣不足, 瘀血과 기타 下焦疾患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治法으로는 補不足 또는 祛瘀하는 內服藥을 사용하는 진신 치료 방법과 坐藥형태의 약물을 子宮의 腔內에 삽입하는 국부요법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灸法과 呪術의인 방법까지 사용하였다. 妊娠의 診斷은 脈診과 증상을 통한 진단방법을 소개하였고, 養胎에 관해서는 임신 개월 수에 따른 胎兒의 狀態에 대한 설명과 함께 胎教의 중요성과 妊娠禁忌 등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임신중의 발병에 대해서는 태아에게 危害를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虛證인 경우에는 補法을 사용하고 實證인 경우에도 藥性이 강한 약물을 피하여 완만한 치료법을 선택하였으며, 내복약 이외의 다양한 外治法을 소개하였다.

出産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출산 증후에 관한 설명과 출산 준비 및 難産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孫氏는 출산 증후에 대하여 간단하게 일반적인 병증으로 인한 腹痛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출산이 임박해서 助産活動에 관한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衛生、安全性、體系性を 강조하였다. 難産에 관해서는 난산의 여러 형태에 관한 설명과 함께 상황별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産後疾患에 대해서는 虛損과 惡露를 중요한 병인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편을 두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임상 질환에 있어서도 虛損과 惡露를 치료하는 補虛、祛瘀하는 치료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수반되는 증상에 따른 가감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기타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는 각각의 증상별 治法 뿐만 아니라 동반된 증상에 따른 변증과 가감법을 소개함으로써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인과 질환의 올바른 처방을 제공하였다.

孫氏는 당시에 이미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여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美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化粧品 製造法、皮膚管理法、芳香劑製造法、頭髮管理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이와 같은 孫氏의 婦人科에 관한 學說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諸病源候論》에서 제시한 내용만큼 자세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醫學理論에 기초한 다양한 臨床的인 治療法을 제공한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1. 趙璞珊, 孫思邈千金兩方在婦兒科方面的成就, 中華醫史雜誌, 1983;13(1):30-33.
2.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3. 李景榮 등,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22-83.
4. 趙勉彙 朴炫局, 婦人科에 關한 醫史學的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1997;108
5. 高文鑄, 小品方輯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130.
6.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1141-1242.
7. 殷逸山 등,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49.
8. 李景榮 등, 備急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86-125.
9. 尙志鈞, 尙元勝, 本草經集注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437.
10. 張璐, 千金方衍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29.